

구조기술인들의 하나 됨을 위한 지혜와 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의 어두운 그늘을 달력의 뒤편으로 떨쳐버리고 가슴 떨리는 흥분으로 을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전체의 불안심리와 경기침체의 여파는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들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아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위상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건축구조기술사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회가 사단법인으로 위상을 달리하는 첫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진행된 사안들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우리회의 재정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자 다채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실행하였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각종 지자체 등 다양한 곳에 배포하였고, 아울러 우리 회의 심볼(Symbol), 로고(Logo) 등을 마련하여 우리회의 위상과 틀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우리회의 회지가 지금까지는 한정된 부수만을 제작하여 회원들 위주로 배포하여 왔으나, 지난 6월호부터는 대폭적으로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처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지의 이름을 “건축구조”로 개정하고 관청에 도서등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축구조회지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회를 널리 알려 위상을 제고하자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셋째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증사업을 시행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새로운 인증사업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합니다. 넷째로는 구조설계의 실명화를 통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회원의 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조계산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반응 또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회원간의 교류와 기술력의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회원의 실력 배가와 전문적 지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회의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년 가을의 현장투어는 현장견학 및 생산공장 등의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한 현장학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사 여러분과 또 구조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구조인들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현장감각을 몸소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계획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기대됩니다. 여섯째로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구조기술과 연관된 학술단체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유관 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지반공학회, 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협회, 지진공학회 등과 함께 다채로운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건축구조와 연관된 지식의 보급과 연구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하려 합니다.

그 이외에도 전문서적 발간사업, 기술 강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기술사사무소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반사항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우리회의 발전전략은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발 빠른 기술보급, 기술우위 확보 및 기술향상에 힘쓰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기술사 업무의 안정된 업무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우리회의 재정적 내실화를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들이기에, 모두가 나의 길이고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을유년 한해에는 우리회가 어느 기술사회보다도 확고한 내실을 기하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구조기술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회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더욱 알차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 드리면서 신년사를 전해드립니다.

2005.1 회장 이동현